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멈춰라 팔레스타인 저항 정당하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2만 1500명 이상이 이스라엘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다수는 어린이와 여성들로, 어린이만 8000명이 넘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무차별로 폭격하며 학교와 병원, 민간인 주거지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은 '피의 성탄절'을 보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엄청난 희생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자지구 10가구 중 9가구는 매일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유엔 세계식량계획). 가자지구에 영양실조 등으로 '죽음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5살 미만 어린이가 7000명이 넘습니다(국제 아동보호 단체 세이브더칠드런).

이스라엘은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을 이유로

반인류적 범죄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저항의 뿌리는 지난 75년 넘게 계속돼 온 이스라엘의 점령과 인종 학살에 맞서는 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시온주의[유대인 단일 민족 국가 건설 이념] 정착민에 의해 건국된 이래, 원주민인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강제 추방과 토지 점령을 하며 인종 청소를 벌여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만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한 전 세계적 분노가 커져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싸울 것"이라며 전쟁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학살 지원은 중단돼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돈과 무기를 지원하며 물심양면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해 왔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서 계속해서 휴전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 부근인 홍해에 다국적 함대를 파병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군사적 충돌이 중동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예멘의 후티 정부가 가자지구 학살을 규탄하며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겨냥하는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작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참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학살을 두둔하는 것을 넘어 군사적 개입까지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도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연대에 함께합시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야만 앞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은 무릎 꿇지 않고 점령에 맞서 왔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용기와 세계를 향한 연대 호소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응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이래 매주 재한 팔레스타인인들을 비롯한 내외국인들이 집회와 행진을 해 왔고, 서울뿐 아니라 부산, 인천, 수원, 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도 연대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월 13일(토)에는 “이스라엘의 학살과 점령 중단”이라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요구



를 지지하며 전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함께 국제 행동의 날을 벌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같은 날 영국과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시위와 행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함께 이스라엘의 학살과 범죄를 규탄하고, 인종 학살 중단을 요구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연대에 힘을 모읍시다.

2024.01.03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멈춰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1.13

국제 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

1월 13일(토) 오후 2시
서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아랍어-한국어 통역 제공 | 집회 후 도심 행진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웹사이트 바로가기 ▶

후원 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백은진)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개최를 위해 사용됩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재한 팔레스타인인들·아랍인들과 39개 시민사회단체)

강남향린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대 세미나 모임 책크책크,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 공무원노조 동작구지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분과 동지연대회의', 기아차 화성공장 반전평화모임(정의당 기아 화성 직장위원회, 진보당 기아 화성 현장위원회, 기아화성공장 평조합원의 목소리),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노동자의 집, 노동자의 책, 노동해방 참세상을 위하여,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마르크스주의연구모임, 불세바퀴그룹, 서울서부 2030독서모임 마르크스주의ABC, 쌍탈작은도서관, 아시아의 친구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울주군 주민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작은책, 전교조 서울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전국철도노조 성북승무지부, 참여연대 마라톤 모임, 청소년단체 아호, KT전국민주동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외대 중앙동아리 왼쪽날개, 해방 세상을 향해 진군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진 스페인어과 학생회 졸업생모임,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홀대인기반하는사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2023년 12월 16일 현재 39곳, 가나다순)